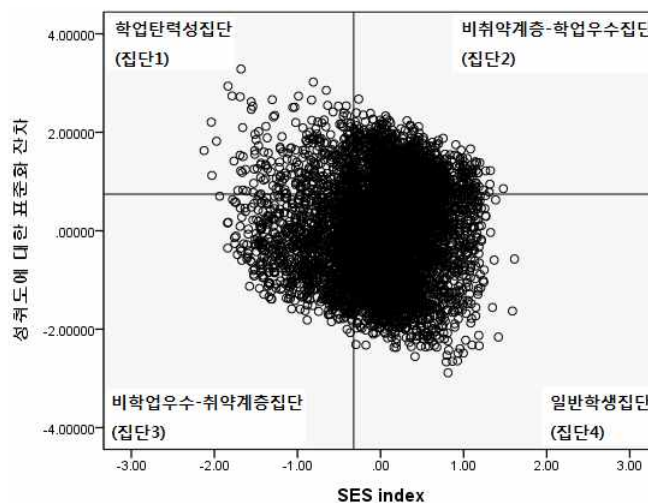


# 학업탄력성이 있는 학생들의 고교 및 대학생활 특성 분석

서울대학교 박현정 교수 연구팀

교육측정평가 전공 박현정 교수는 최근 ‘학업탄력성(Academic Resilience)’에 주목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주제를 다룬 본 연구 ‘학업탄력성이 있는 학생들의 고교 및 대학생활 특성 분석’은 작년 한국교육 종단연구 학술대회에서 발표되었으며 논문은 6월 교육 학술지인 ‘교육평가연구’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해당 논문의 개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교육종단연구 1-8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가정의 사회경제문화자본과 성취도를 고려하여 학업탄력성집단을 분류하고, 학업탄력성이 있는 학생들의 고교생활 특성 및 대학생활 특성을 분석하였다.



(그림 1) 학업탄력성 집단 분류

학업탄력성이 있는 학생들은 고교생활 특성에서 비취약계층-학업우수집단 학생들에 비해 부모의 학업적 지원, 학생회 활동 참여는 더 적었으나, 유사한 가정배경을 가진 비학업우수-취약계층집단 학생들에 비해서 도구적 동기가 높았고,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드는 교육인 방과후학교, EBS, 독서 등을 많이 활용하며, 협동심, 배려심, 시민의식 등의 정의적 특성도 더 긍정적이었다. 대학생활 특성에서도 학업탄력성이 있는 학생들은 비학업우수-취약계층집단 학생들에 비해 수업참여도가 더 높고, 학업일탈행동이 더 적었으며, 대학 이후 성적이 더 높았다. 비취약계층-학업우수집단 학생들과 비교했을 때에도 대학 이후 성적에서 차이가 없었으며, 학업탄

력성이 있는 학생들이 성적우수상 또는 장학금은 더 많이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한국교육중단연구 자료를 활용하여 중학생 시기의 학업탄력성이 이후 고교생활 및 대학생활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그동안의 연구들에서는 학업성취도 자체나 기초미달 학생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것에 비해, 학업탄력성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이 연구에서는 가정형편이 열악함에도 이를 잘 극복하고 가정배경에 비해 우수한 성취도를 보이는 학생들의 특성에 주목하여 학업탄력성이 있는 학생들의 특성을 종단적으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 연구에서 살펴본 학업탄력성은 소위 일컫는 ‘개천에서 난 용’과는 다른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 ‘개천에서 난 용’은 어려운 교육 여건 속에서도 절대적인 기준에서 매우 뛰어난 성취와 수행을 보인 사람을 뜻한다면, 학업탄력성이 있는 학생들은 그들의 가정배경에 비해 기대되는 성취보다 더 높은 성취를 보인 학생들로 사회경제적 배경을 고려한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학업탄력성은 사회경제적 지위 지수(SES index)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게 된다.

또한 학업탄력성에서는 가정배경이 학업성취를 설명하고 남은 부분, 즉 잔차(residual)를 활용하기 때문에, 가정배경이 학업성취를 상당 부분 설명할 때에만 학업탄력성집단을 구분하는 것이 의미가 있어진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개별 학생들의 가정배경을 고려했을 때 기대되는 성취 수준을 예측할 때에 부모의 교육수준과 소득뿐만 아니라 문화적 자본, 사회적 자본 등을 최대한 모형에 포함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등과 같은 대규모 자료에서는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대한 다양한 지표들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경우 사회경제적 지위 지수를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좋을지, 또한 대규모 연구에서 사회경제적 배경을 어떻게 측정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고민과 연구가 추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이 연구는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교육격차와 관련하여 기존의 학교 단위의 접근이 아닌 학생 개인의 수준에서 접근하였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비취약계층-학업우수집단에 비해 학업탄력성집단의 부모의 지원과 학생회 활동 참여가 더 낮게 나타났는데, 교육격차 감소를 위해서는 이러한 차이를 보완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예를 들어, 취약계층 부모의 교육적 관심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거나, 학생회 활동 등에 부모의 경제적 지원이 없더라도 참여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수 있다. 또한 비학업우수-취약계층집단과 학업탄력성집단은 비슷한 가정배경에도 불구하고 학업적 수행에 있어서 차이를 보였는데, 학업탄력성집단이 비학업

우수-취약계층집단에 비해 긍정적인 특성을 보였던 도구적 동기, 학습전략, 방과후 학교 참여, EBS 참여, 독서시간 등은 학업탄력성이 있는 학생들이 열악한 가정배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요인들을 비학업우수-취약계층학생을 위한 학업 지도에 적용하여 가정배경이 열악한 학생들의 학력 향상을 지원한다면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 연구에서는 중학생 시기를 기준으로 학업탄력성을 구분하여 그 이후 특성을 살펴보았으나, 학업탄력성에 대한 추후 연구에서는 학교급이 올라감에 따라 학업탄력성이 있는 학생들의 규모나 구성에서 있어서 변화가 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학업탄력성을 가지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 학업탄력성을 기르도록 돕기 위해 어떠한 교육적 지원과 정책이 필요한지 등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